

봄나물

박숙자(시인)

칼바람 이겨낸
노점상 은빛머리 할머니
겨울 찌꺼기 벗어 놓고
꽃샘바람에 떨며
행복에 젖은 봄을
쑥, 냉이 한 움큼씩 팔고 있다

봄 한 바구니 사들고
깃털처럼 가벼운
집을 향한 발걸음
식탁에 퍼지는 봄내음
엄마의 젓 냄새가 난다

몹시 차고 매운 칼바람은 건디기 어려운 겨울을 상징한다. 그와 전투하여 이겨냈다 생각 하고 백전노장의 남루한 은빛머리에다 두터운 겨울갓옷마저 벗고 매복한 꽃샘바람에 떨며 봄에 돌아나는 봄동, 달래, 냉이, 돛 나물을 인정 어리게 듬뿍듬뿍 담아 파노라면, 완연한 봄에 이르기 전에 서둘러 캐내는 행복에 젖은 봄이 진하게 묻어나고 있다.

겨울의 장막이 걷히는 날만 기다렸다. 넓은 들판에 여기저기 널려있는 봄나물들이 봄을 가져와 기다리는 손님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아직 봄이 오기를 더 기다렸지만 이번 겨울은 왜인지 길기만하다. 코와 입까지 가려야 견뎌내는 추위가 버티고 있다. 무슨 겨울이 2년이 훌쩍 넘었으니 말이다. 보고 싶은 봄은 깜깜 무소식이다. 무엇이든 해결해주시던 엄마가 백신을 가져 오시려나 식탁 봄나물에서에서 젓 냄새가 난다고 은유하고 있다. (윤제철)

독섬별곡 2

김문철(수필가)

어느덧 계절은 두꺼운 겨울옷을 벗고 봄이 오기를 재촉하며 화사한 봄옷으로 갈아입고 있다. 봄비가 내리는 어느 날 오후 나는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에서 내려 성동교를 지나 송정제방 길* 을 걷는다. 제방 길 양옆으로 서 있는 빗꽃 나무의 어린 연두색 잎들이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봄비를 맞으며 한잎 두잎 떨어진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산 아래로 펼쳐지는 살곶이벌을 보는 순간 독섬에서의 지난날의 추억들이 물고기가 물밑을 스쳐 지나가듯이 내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스쳐 지나간다.

독섬은 옛날부터 인심이 좋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했다. 그래서 독섬 사람들은 누엿누엿해가 지는 저녁 무렵에 어떤 집의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지 않으면 서로 찾아가 도와주었다고 한다. 독섬 일대는 살곶이벌이라고도 했는데 그 연유는 다음과 같다. 태조 이성계는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등극한 지 2년 후 무학 대사의 간청으로 1402년 함흥에서 다시 서울로 돌아온다. 태종은 부왕을 맞이하기 위해 넓은 벌에 큰 차일을 치고 굵고 높은 기둥을 세우는데 멀리 도착한 태조가 갑자기 활을 쏘자 급히 기둥을 안고 피하였고 화살은 기둥에 꽂혔다. 이후 화살이 날아와 꽂혔다 하여 '살곶이벌'로 불렸다는 것이다. 살곶이벌에는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불국산에서 발원해서 의정부를 지나 하류에서 청계천과 합류하여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중랑천이 흐르고 있다. 그 중랑천을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바로 살곶이다리로 1420년(세종 20)에 착공하였으나 워낙 큰 대공사여서 몇 차례 중단되었다가 1474년(성종 6)에 완공되었다. 당시 서울 장안의 다리는 대개 토교나 목교였는데, 석재를 사용한 살곶이다리는 조선 시대부터 서울과 동남지방을 연결하는 관문이었다. 그러나 1938년 독섬 방면이 발전되면서 살곶이다리의 폭이 통행하기에 비좁아 그 아래쪽에 전차와 차량이 동시에 다닐 수 있는 다리를 건설하였는데, 도성의 동쪽에 있는 다리라는 의미로 성동교라고 하였다고 한다.

나는 어린 시절 동네 친구들과 독섬에서 사대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인 성동교 아래로 자주 놀러 갔다. 우리는 성동교 아래로 가려면 제방 밑으로 설치한 수문을 지나서 갔다. 그런데 수문이 낙후가 돼 잘 작동이 되지 않아서 장마철에 비가 조금만 내려도 그 일대는 물바다가 되곤 하였다. 그 당시 성동교 아래에는 오갈 데가 없는 한 가족이 나무판자와 골판지 그리고 가마니 등으로 열기설기 엮어서 대충 바람막이 막고 생활을 하고 있었다. 오늘날은 상상도 못 할 일이지만 그 당시는 식수를 비롯한 모든 생활용수는 중랑천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을 사용하여 밥도 하고 빨래나 목욕도 하였다. 성동교 아래 중랑

천 주변으로는 미나리 깡이라고 하는 미나리 밭이 있었다. 나는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다가 노는데 정신이 팔려 나도 모르게 미나리 깡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리에는 거머리투성이였다. 거머리들은 벌써 내 다리 주위에 까맣게 들러붙어 피를 빨아먹어서 다리는 뚱뚱 부어 오르고 가려워서 긁으면 피가 났다. 그러면 내 다리에는 얼마간은 거머리들의 흔적인 상처 뿐인 영광만이 남아있었다.

뚝섬 일대가 근대화의 물결을 타기 시작한 것은 서울에서 최초로 상수도 수원지가 생기면서 시작되었다. 서울에 전기와 전차를 도입한 미국인 콜브란과 보스틱은 1903년에 고종 황제로부터 상수도 시설의 허가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수도 역사의 출발지인 뚝도 정수장은 청계천이 한강과 합류하기 전의 상류 지역인 뚝섬 근처의 한강을 수원지로 택하여 1906년에 착공해서 1908년에 완공하여 서울 시내에 급수를 시작했다. 뚝섬은 1940년대 후반부터 도시화가 시작되어 공장이 건설되고, 대규모 주택단지가 형성되었다. 그러다가 1989년에 뚝섬경마장이 경기도 과천으로 이전하고 뚝섬지구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도시화가 가속화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옛 뚝섬경마장에 서울의 숲이 조성되어 도심 속 숲으로 크게 문화예술 공원, 생태 숲, 자연체험 공간, 습지 생태공원, 한강 수변공원 등 5개 테마구역으로 조성되었다.

봄비가 그치고 맑게 하늘이 밝아오자 저 멀리 보이는 해발 81m의 응봉산이 저녁노을에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응봉산은 조선 시대에 왕이 매를 풀어 사냥을 즐겼다고 하여 매봉산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선비들의 학습을 위한 동호독서당(東湖讀書堂)이 있었다. 또한, 응봉산 남쪽에는 얼음을 보관하는 빙고(氷庫)를 설치했는데, 동쪽에 있어서 동빙고(東氷庫)라고 불렀다. 응봉산은 황량하기 그지없는 돌산으로 봄이면 희망, 기대, 깊은 정이라는 꽃말이 있는 개나리꽃이 노란색 물결을 이루면서 봄의 추억을 간직하게 했다. 그러나 지금 응봉산 정상부근에는 팔각정을 만들어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서울의 모습과 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바라보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과거의 흔적은 잘 찾아볼 수가 없으나 살곶이다리는 여전히 비스듬하게 중랑천을 건너는 모양으로 남아있다. 중랑천 옆으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가 건설되어 저마다 무슨 사연을 갖고 가는지 수많은 자동차들이 오가고 있다. 날이 어스름하게 어두워지면서 자동차 헤드라이트의 불빛들이 멋진 빛의 향연을 연출하고 있다. 비가 조금만 내려도 물바다가 되던 살곶이별 고수부지에는 국궁장 등 각종 운동시설이 들어서 시민들의 휴식처로 변화였다.

살곶이별을 보고 있으면 수정처럼 맑고 영롱한 아침이슬이 내리면 만물이 생동하듯이 지난 시간들이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만져주는 것 같다. 또한, 바람이 불어서 꽃이 피고 지는 바람꽃인 아네모네처럼 세월의 흐름과 함께 지난날의 추억들이 가슴속으로 밀려든다.

*송정제방 길 : 성동교에서 장평교 사이, 동부간선도로 옆의 뚝방길이다.